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6시에 유튜브를 통해
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3. 수요성경공부

수요일 저녁 7시 30분 Zoom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사정이 있어 참석
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음날 목요일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 참여하시
길 바랍니다.

4. 주일 애찬 교제 모임

주일 예배후 진행되는 애찬 교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5. 뉴저지 아버지 학교

4월 5일(토), 6일(주일) 다음주일 아버지학교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위해서 계
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본당에서 정상적으로 드려질 예정입니
다.

6. 종려주일&부활주일

4월 13일(주일) : 종려주일 예배
4월 20일(주일) : 부활주일 예배

지난 주 (3/23)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868.93

9:1: 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정예빈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14장 1-11절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낮아짐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4월 6일	4월 13일(종려주일)
장헬렌	Chris Choi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내가 가는 길

기독교의 핵심진리는 자기부인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기독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자기 부인을 강조하고 심지어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자기 성찰과 자기 부인을 성숙한 어른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부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종교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기 부인이란 언제나 자기 노력과 의지를 수반합니다. 자기 결단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자기부인은 결코 자기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부인을 이루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허무하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광야 속에 놔두십니다. 그것을 통해 스스로 이루지 못하는 자기부인을 강제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양식을 내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걱정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여기서 떠나시라고 권면합니다. 얼핏들으면 예수님을 위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위로와 축복과 사랑을 가장한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좁은길 좁은문을 설교하신 후 그들은 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나면서 피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된 것으로 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며 그들의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영광의 길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도 이것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내면의 전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싸움을 피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표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십자가 너머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서 허무함을 노래한 후에 이 세상의 정욕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낸 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길을 가야하겠다는 주님의 고백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놓여진 좁은길과 넓은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